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을 통한 집단기억의 형성과 유지

스누라이프에서의 태그달기*

한신갑

서울대학교

〈논문요약〉

사람들에게 2009년의 10대 뉴스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으면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Life)에 들어가면, <인기 태그>란을 찾을 수 있다. 이 난에는 그때그때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사안들에 대한 태그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데, 그 가운데 지난 두 해 동안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이 2009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선거부정 의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용되었던 ‘박진혁’과 ‘박정역’이라는 태그다. 이렇게 오랜 기간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집단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해내기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운동의 새로운 한 형태가 바로 ‘태그달기’다. 이 연구에서는 18개월간의 게시물과 태그를 자료로 삼아, 태그달기가 사회운동으로 틀 잡아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온라인 사회운동의 기제가 오프라인의 그것과 어

* 김도담과 김민아가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학생자율연구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1차 자료를 구축했고, 스누라이프에서의 눈과 귀 역할을 했다. 추가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김희정과 강민석, 생각과 글을 다듬는 데 도움을 준 김영진, 김이선, 이병규, 이상직, 정인관에 계도 감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익명의 심사자 세 분이 한 번 더 빈 자리들을 지적해 주셨다.

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사회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맥락과 연관지어 본다.

■ 주요어: 사회운동, 집단기억, 온라인, 태그달기

“히다카 씨는 구리하시 히로미와 다카이 가즈아키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호한 그 어투가 요시오에게는 적이 당혹스러웠다.

“돈이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아사이 유코는 맑은 눈동자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잠깐 생각한 다음 말했다.

“시간, 이라고나 할까요.”

“시간?”

“예. 내버려두면 곧 망각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릴 그 사건을 위해서 시간을 벌려는 거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지금은 텔레비전이나 잡지가 이 사건을 열심히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석 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년 후에는? 또 다른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쪽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테고, 그러면 마리코나 치아키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말 테지요. 구리하시 히로미와 다카이 가즈아키의 이름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겁니다.”

_미야베 미유키(2006:31-32)

1. 어제의 뉴스는 다 어디로 갔을까

2009년의 10대 뉴스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기억해 낼 수 있을까? 불과 3년 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들은 이미 망각의 저편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다음의 <표 1>은 그 해 연

<표 1> 2009년 국내 10대 뉴스

국내 10대 뉴스기사 키워드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해럴드경제	조선일보
김대중·노무현 前대통령	1	1	2*	1*
김수환 추기경	9		2*	1*
북한	3	2	3	4
용산재개발	2	3		8*
G20정상회의 서울유치		5	6	2
세종시	7*	4	7	3*
4대강	7*		10	3*
미디어법	4	6	5	7
나로호		7		5
강호순·조두순		8	8	8*
'김연아 시대'	10		9	9*
남아공월드컵축구 동반 진출		9		9*
경제위기 탈출			1	
전국 녹색바람			4	
신영철 사퇴 거부	5			
'워낭소리', '똥파리'	6			
민노총 탈퇴				6
쌍용차 사태	8			
연예계 파문		10		
막걸리 열풍				10

주: 숫자는 각 매체별 순위. *는 한 항목으로 동시언급된 경우

말 네 개의 신문사들이 10대 뉴스로 선정했던 사건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환기를 하고 나면 ‘아! 그렇지, 그거’ 하며 무릎을 칠 것이다. 그 당시 이 사건들이 주었던 충격이나 감동,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역사적 의미 등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잊혀졌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지만, 이제는 모두 ‘어제의 뉴스’가 되어 버렸다.

시간의 흐름 자체를 막을 도리는 없지만, 그것과 함께 오는 망각을 막으려는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 역사 쓰기가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기념비, 기념일, 기념회 등도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사회학에서는 이런 시도들을 ‘사회적 기억’, 또는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이라는 틀로 이해한다(박명규 1997; Halbwachs 1992; Olick and Robbins 1998; Schwartz 1982).

최근의 한 사례를 보자. 지난 2011년 12월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992년 1월 8일에 시작한 ‘수요시위’의 1,000번째 집회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었다. 20년에 걸쳐 매주 빠짐없이 시위가 열렸다는 사실이 그 시위의 절실함을 더 큰 울림으로 전해줄 수 있게 한 소식이었다. 종군위안부 문제 자체가 갖는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공론장(公論場)의 전면에 세워두려는 노력이 사회운동으로 조직되지 않았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흔치 않은 ‘잊지 않기’의 성공사례들에서 빠짐없이 보이는 것은 집단기억과 사회운동의 접합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접합의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본다. 하지만 여기서 다룰 사례는 사회운동을 통한 집단기억의 유지를 보여주는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사례들(한성훈 2008; Bodnar 1993)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새로운 유형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공간과 ‘태그’라는 새로운 기억유지의 매체이다. 이 새로운 공간과 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동원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집단기억을 만들어 내고 유지시키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21세기 사회운동의

지형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다음 절(節)에서는 사회운동, 집단기억,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세 가지로 연구의 기본적 틀을 짜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삼각구도 안에 연구의 주제를 자리매김한다. 3절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삼은 사회운동 사례가 전개된 공간(스누라이프), 내용(선거부정 의혹 사건), 그리고 방식(태그달기)을 설명한다. 전개의 과정과 기제를 분석하는 4절에서는 우선 자료를 소개하고, 태그달기의 성공이 어떤 기제들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가를 살펴본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 사례의 분석이 주는 함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운동에 대한 전망을 시도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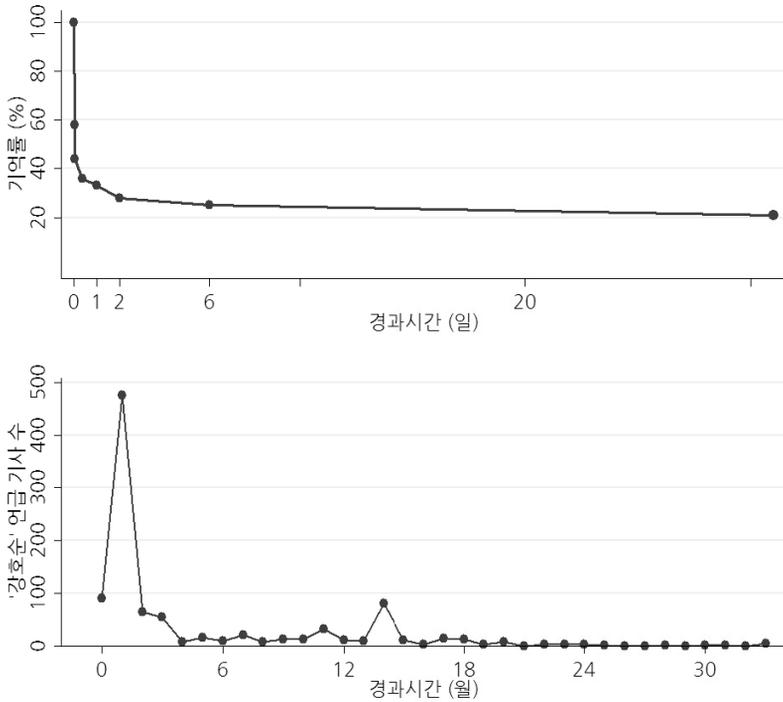
2. 세 꼭지점 연결하기

1) 사회운동의 시각에서 본 잊기와 잊지 않기

〈기억-망각〉의 축에서 중력(重力)은 항상 망각 쪽으로 기운다. 즉, 외적 요인의 개입이 없는 자연상태라면 속도와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 수렴되는 기본값(default)은 망각이다. 이런 비대칭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림 1〉의 상단에 있는 ‘에빙하우스(Ebbinghaus) 망각곡선’이다. 이 곡선의 형태는 경과(經過)시간에 따른 기억률(R)의 감소를 가설화한 다음의 식(式)에 의해 결정된다. 경과시간(t)이 늘어나면 기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 기억의 강도(S)가 그 감소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잊혀진다는 점에서 이 곡선의 기본적인 모양새를 바꾸지는 못한다.

$$R = e^{-\frac{t}{S}}$$

〈그림 1〉 망각곡선: 개인과 집단



주: 상단-에빙하우스(Ebbinghaus) 망각곡선,
 하단-2009년 10대 뉴스 중 '강호순' 사건에 대한 신문보도의 월별 추세

그렇다면 한 집단, 또는 사회의 기억은 어떨까? 개개인의 기억과 같은, 즉 앞의 식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지속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림 1〉의 하단에 있는 곡선은 앞의 〈표 1〉에서 언급한 사건들 중 하나—‘강호순’ 연쇄살인 사건—가 신문지상에서 언급되는 빈도(뉴스기사 수)를 세어 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¹⁾ 독자들의 관심을 이끄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 서비스인 KINDS에서 ‘강호순’이라는 검색어를 사용해

는 것이 신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관심에 이끌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신문이다. 그런 면에서 신문은 그날 그날 한 집단, 한 사회의 기억을 읽을 수 있는 표식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과 집단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그림의 형태는 같다. 즉,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에 집중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재판 일정이 진행되면서 다시 잠깐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빠르게 신문지상에서 사라진다. 개인 수준에서든 집단 수준에서든 쉽게 빨리 잊고, 또 그렇게 잊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보여준다.

이런 중력을 거슬러 한 사안을 공론장의 전면에 장기간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위에서 언급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망각으로의 엔트로피(Entropy) 문제다. 또 하나는 새로운 사안들의 출현이다. 공론장을 하나의 생태계로 본다면 그 생태계의 기본적인 틀은 사안들 간의 끊임없는 관심 경쟁이고, 이 경쟁에서는 대체로 새로운 사안들(news)이 ‘새로움(newness)’ 그 자체 때문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보다 긴 시간의 틀에서 보면 세대의 문제가 있다. 세대교체로 인한 단절의 가능성에 대응하지 못하면 사안의 지속적 재생산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림 1>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망각 쪽으로 기우는 중력의 무게를 극복할 수 있을까? 망각곡선의 모델에 의하면 기억률(R)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경과시간(t)과 기억강도(S)이다. 즉, 기억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경과시간을 줄이거나 기억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기억강도를 사건 발생 당시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3년간을 월별로 검색한 결과이다. ‘전국종합일간신문’으로 매체의 범위를 제한하였고, 제목과 본문을 모두 검색하였다. KINDS 자료의 검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mediagaon.or.kr을 참조하라. ‘강호순’과 동명이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 강호순에 관한 기사는 제외하였다.

고정되는 것으로 본다면, 개입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은 경과시간이다. 물론 시간의 흐름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 하지만 반복적인 환기를 통해 경과시간을 계속 재설정(reset)할 수는 있다. 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반복학습’의 효과가 바로 이 논리에 의한 것이고,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수요시위가 매주 열리는 이유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많은 행사들의 주된 기능도 여기에 있다.

사건의 발생 자체는 자생적(自生的)이고 우발적(偶發的)일 수 있지만 그것들을 집단기억으로 공론장의 전면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앞에서 본 수요시위와 정대협외의 경우처럼 ‘지기’의 역할을 맡는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동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흔히 보는 ‘○○기념사업회’, ‘××추모사업회’ 등은 이런 노력을 공식적으로 조직화, 제도화하려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도 사회운동을 통한 집단기억의 유지라는 기제의 기본적인 틀은 같이 한다. 하지만 이 기제의 작동방식은 새롭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사회공간, 태그라는 새로운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전혀 다른 형태의 ‘조직’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동원(動員)에 성공하고, 집단기억을 형성·유지시키는 새로운 운동의 과정과 형태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2) 온라인(에서의) 사회운동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 시공간의 사회적 구조와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사회운동의 조직과 동원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의 등장 이전에도 많이 연구되어 왔다(예: 전화에 대한 Fischer(1994)의 연구나 라디오에 대한 Roscigno와 Danaher(2001)의 연구). 최근에 관찰되기 시작한 온라인(에서의)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들과 기본적인 시각은 같이 하지만, 그 변화의 규모와 효과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혁명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Bimber 2000; Earl and Kimport 2011; Garrett 2006).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혁명이 가져온 변화가 사회운동에도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운동에 새로운 도구와 무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운동의 동기까지 만들어 내는 현재의 상황은 사회운동의 모든 영역—주체의 구성, 행위의 양식, 전파와 소통의 방식, 동원과 참여의 비용 및 효과 등—에서 과거의 운동들과는 다르고, 따라서 사회운동의 이해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붉은 악마, 노사모, 촛불시위가 겹쳤던 2002년 이후, 2004년 대통령 탄핵반대운동,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을 경험하면서 이제 인터넷과 사회운동은 떼어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한 연계를 가진다(강장묵·조희정 2008). 그동안의 국내연구들을 검토한 민경배(2006)는 이런 맥락에서 ‘온라인 고유의 독자적인 사회운동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앞으로의 연구에서 탐색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 또 그 탐색과정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의 구분에 대한 사고의 틀을 재정립하고, 전통적인 사회운동 연구에서 보이는 제도화된 운동단체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며,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구체적인 행동양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새로운 사회운동 양식의 출현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둘로 갈린다. 한편에서는 공론화, 연대화, 동원화의 모든 과정에서 보이는 효율성, 효과성, 확장성이 질적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데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부담 없는 쉬운 참여는 결국 책임 없는 약한 참여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이런 대비(對比)는 그동안 사회운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묵시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비용/고위험’ 참여가 의도나 동기에 있어 더 진

지하고 책임 있는 참여이고, 따라서 그 효과도 더 지속적이고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선형적(線形) 가정에 따른 것이다(McAdam 1986). 그동안의 오프라인 경험으로만 보면 이 가정이 설득력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온라인에서의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다룬 사례가 바로 전형적인 ‘저비용/저위험’ 참여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 참여의 방식이 보여주는 지속적, 효과적인 영향력은 이런 이분법적 가정의 현재적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한다(장덕진 2012).

3) 온라인판(版) 집단기억

사회운동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행동양식이 운동의 구조와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정쟁(政爭)의 양식들(repertoire of contention)”이라는 개념을 썼던 Tilly(1978)를 비롯해,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다(Snow, Soule, and Kriesi 2009). 새로운 행동양식의 개발이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새로운 무기의 개발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는 것이 이들 연구자들의 입장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정보사회’, ‘네트워크사회’로 불리는 현대사회의 운동양식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Rolfe 2005). 그 한 예가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사태 때 인터넷에 등장했던 ‘근조리본달기’ 운동이다. 메신저의 대화명 앞이나, 게시판의 글 말머리, 또는 블로그 소개문구에 ‘▶◀[謹弔] 대한민국’ 등의 표시를 달아 향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오프라인에서의 리본이나 뱃지달기 등의 행동양식을 온라인으로 옮긴 시도였다. 그 외에도 게시물 조회나 온라인 서명 등 오프라인의 틀을 온라인에 전용(轉用)·이식(移植)하는 경우들이 있고, ‘퍼다나르기’나 ‘땃글달기’처럼 온라인 고유의 틀 안에서 새로운 행동양식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안광현·윤종현(2009)은 이렇게 새로이 나타난 행동양식들을 액티

비즘(activism)과 해커비즘(Hacktivism)²⁾으로 크게 나누고 모두 열 개의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룬 ‘태그달기’는 이 열 개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와 연관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로 ‘배너/리본달기’와 ‘게시글쓰기/말머리달기’가 있다. 이런 유형의 행위들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저비용/저위험의 참여방식이다. 쉬운 만큼 널리 빠르게 퍼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쉽게 시작한 만큼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일회성(一回性), 휘발성(揮發性)의 위험을 막고, 이 참여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응결시킬 수 있을 때, 성공적인 집단기억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가능해진다. 동원과 참여규모의 일회적 확산에는 온라인이 분명 더 유리하지만, 지속성을 유지하기에는 온라인이 더 어렵다. 오프라인 조직에 수반되는 사회적 관계의 복합과 중첩이라는 맥락(social embeddedness)의 구속력이 온라인에는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기념비(記念碑) 등 ‘물체성(物體性)을 지닌’ 기념물을 통한 기억의 유지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이들 유형들을 통해 형성되었던 집단기억은 한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에서는 집단기억을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장기간 유지해오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험적 사례 그 자체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사회운동-온라인-집단기억’이라는 연결고리의 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해커(hacker)와 정치·사회적 행동(activism)의 합성어로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 등에 침입하여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해킹이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도 보인다. 그중 ‘박진혁’과 ‘박징역’이라는 두 태그는 2009년 11월에 있었던 제53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학생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캠페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림 1>에서 본 망각의 속도와 비교해 보면, 2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잊혀지기는커녕, 아직도 인기 태그에 남아 있고, ‘박징역’의 경우에는 가장 언급빈도가 높은 태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 놀랍다.³⁾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수준의 강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1) 스누라이프와 태그달기

학내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1999년에 시작된 스누라이프(SNULife, www.snulife.com)는 현재 사용자들 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로 자리잡고 있다.⁴⁾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운영되고, 내용도 대부분이 서울대학교와 관련된 것들이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외적으로 폐쇄된 커뮤니티지만, 학내에서는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반(半)공식적인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포털이다.⁵⁾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의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포털이라는 점이 이 연구의 외연을 좁게 규정하기는 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면, 다른 포털에서 만들어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비교했을 때 구조와 기능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오히려 관찰대상의 경계가 좁지만 분명하게 규정됨으로써

3) ‘박징역’이라는 태그는 박진혁의 이름을 풍자해 만든 별명이다.

4) 「[스누라이프 10주년 특집] SNULIFE」, 『大學新聞』(2010/09/06).

5) 웹문서(www.snulife.com/snulife_introduce). 서울대학교의 공식 포털은 ‘마이스누(mySNU)’로 my.snu.ac.kr에서 찾을 수 있다. 사용자들은 스누라이프를 ‘스랏’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연구대상의 경험적 준거가 확실하다는 점이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과정에서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림 2>는 스누라이프의 일반적인 구성을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게시한 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들을 묶는 기본 단위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분류되는 ‘게시판’이다. 이들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리거나, 게시된 글에 댓글을 달거나, 그 글들을 추천/비추(천)하는 등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⁶⁾ 그리고 이런 참여를 통해 스누라이프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광장(廣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기간인 18개월 동안에만도 총 14만여 개의 글이 게시되었는데, 이는 월평균 팔천 개에 가까운 숫자다.

이 게시글들에는 ‘태그’를 달 수 있다. 태그(tag)란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웹상의 정보자료를 간단히 설명하는 키워드, 혹은 연관어를 말한다(김현우·이강표·김형주 2010). Del.icio.us라는 웹사이트가 2003년에 공동 태깅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태그의 원래 기능은 정보를 분류하고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자와 정보자료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다(Golder and Huberman 2005; Smith 2008). 웹상의 태깅시스템이 지금까지의 정보 분류·조직 방법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웹의 확장성과 양방향성을 이용해 태깅의 과정을 이용자들에게 개방해 참여시킨다는 것이다.⁷⁾ 웹사이트에 태그를 다는 Del.icio.us나 책에 다는 Amazon.com, 그리고 사진에 다는 Flickr 등을 성공적인 대중 참여의 경우로 꼽는다. 이 태그를 사회운동에 접합시키는 가능성에 주목한 Zollers(2007)의 연구는 2006년 Amazon.com에서 있었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6) 게시글은 사용자가 원하면 익명, 또는 필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 익명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게시글의 수는 한 개로 제한되어 있다.

7) 이러한 방식을 일반대중을 의미하는 ‘folks’와 분류·조직을 의미하는 ‘taxonomy’를 결합한 ‘folksonomy’라는 합성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폴뿌리’ 참여방식을 높이 사고 있다.

반대 캠페인을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 이용자들로 하여금 DRM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 ‘defectivebydesign’이라는 태그를 달 것을 독려해, 그 태그가 Amazon.com의 주요 인기태그로 등장하게 만든 경우이다. 하지만 이 태그는 대상이 되는 정보자료의 한 속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깅시스템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것이었다.

이 연구의 초점이 되는 ‘박진혁’과 ‘박징역’이라는 두 태그는 이런 기본형태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난다. <그림 3>의 ‘툼크루즈 ccc’란 게시글에 달린 태그들이 그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소녀시대’라는 필

<그림 3> 게시글과 태그의 예



명으로 올린 이 게시글에는 모두 다섯 개의 태그가 달려 있다. 이 중 ‘툼 크루즈’, ‘스틴트’, ‘영화’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키워드를 단다는 태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인 경우이다. 하지만 그 뒤에 달린 ‘박진혁’과 ‘박징역’은 게시글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용(誤用)이지만,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변용(變用), 또는 전용(轉用)을 통해 새로운 행동양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보통 이 태그들은 자동으로 수합되어, 그중 빈도수가 높은 태그들은 <인기 태그>난에 게시된다. <인기 태그>는 사용자가 게시글에 단 태그들의 전체적인 분포를 정리해 시각화하는 한 방법으로, ‘태그클라우드(tag cloud)’,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등의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재 스누라이프에서의 인기 태그 선정여부는 최근 3일간의 태그 빈도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수가 최소 기준인 세 개를 넘을 경우 <표 2>와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해 글자 크기와 색깔을 달리해 보여준다.⁸⁾ <그림 2>의 <인기 태그>난을 보면, 이렇게 뽑힌 태그들이 가나다순으로 정

〈표 2〉 인기태그의 등급

등급	빈도수 기준 (최근 3일간)	서체	예
1	12+	파란색 배경, 흰색 글씨	박징역, 동아리
2	8-11	진한 파란색 글씨	교재, 텡스
3	5-7	연한 파란색 글씨	스터디, 해군기지
4	3-4	회색 글씨	구럼비, 박진혁

8) 스누라이프에서는 빈도수의 조작과 왜곡을 막기 위해 태그가 중복되더라도 한 사용자당 하나씩으로만 센다.

렬되어 있고, 빈도의 비중에 따라 다른 서체로 표기되어 있다. 마치 동원된 군중의 수가 시위의 위세를 재는 척도로 쓰이는 것처럼(McPhail and McCarthy 2004), 이렇게 모아진 태그들의 빈도도 태그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기제로 작동한다.

‘금주의 인기가요’, ‘멜론 차트’나 ‘인기검색어’ 등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인기’에 의해 만들어진 목록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계속 목록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림 2>의 인기 태그에서도 ‘교재’와 ‘동아리’는 학기 초가 지나면 곧 사라질 항목들이다. 이 연구에서 ‘박징역’이라는 태그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일회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데 있다. <그림 2>에 나와 있는 2012년 3월 12일의 <인기 태그>년에는 사건으로부터 2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 ‘박징역’과 ‘박진혁’ 태그를 찾아 볼 수 있고, 그중 ‘박징역’은 1등급의 높은 빈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이 태그를 단 게시물의 절대수는 사건 당시보다 훨씬 증가했을 정도다.

태그달기와 인기 태그를 이용한 기억의 방식은 다수가 동참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핵심적 요소를 갖고 있다. 특히 이 경우는 특별한 주도집단 없이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으면서도,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론들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성공적인 사회운동이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태그달기라는 새로운 행동양식을 통한, ‘온라인 액티비즘(online activism)’의 한 유형으로서의 ‘태그 액티비즘(tag activism)’이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이다.

2) 선거부정 의혹 사건

이 태그달기의 발단이 된 선거부정 의혹 사건은 2009년 11월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

위) 위원장 박진혁이 개표 전에 투표함을 뜯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일련의 사태를 가리킨다. 박진혁은 제51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실천가능’ 선거본부(이하 ‘선본’)의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그리고 제52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제52대 총학생회가 구성된 후, 몇 가지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대표적인 예가 2009년 1월에 있었던 ‘위조식권 사건’으로, 그 결과 총운영위원회에서는 당시 시국선언의 명의를 총학생회로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가 있었고,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총학생회를 불신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11월 제53대 총학생회 선거를 치르게 된다.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현(現) 총학생회장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박진혁도 제53대 총학생회 선거의 선관위 위원장을 맡았다. 11월 말까지 가는 연장투표 끝에 최소 투표율을 넘겨 선거가 성사는 되었으나, 개표과정에서 투표함의 봉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천가능’ 선본 계열의 ‘리본’ 선본과 경쟁하던 ‘예스위캔’ 선본 측에서 박진혁이 개표 전에 투표함을 개봉해 표를 세는 듯한 소리가 녹음된 도청 녹음파일을 제출함에 따라, 개표과정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선관위가 사퇴하고 새로운 선관위와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구성되었으나, 결국 녹음파일의 법적 지위와 효력 문제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조사위는 해소된다. 그 후 박진혁을 비롯한 전(前) 선관위에 대한 공개청문회가 개최되었지만, 역시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박진혁 전 총학생회장의 공개청문회에서의 발언 내용이나 공개된 녹음파일의 내용⁹⁾ 등을 바탕으로 학내에서는 선거부정을 기정사실화하

9) 녹음파일 자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 파일의 녹취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의 속기록이 요약문의 형태로 인터넷에 공개됨으로써 널리 알려진다. 속기록 요약문(「박진혁 청문회 하이라이트」)을 [부록]으로 <http://sociology.snu.ac.kr/skhan/links.html>에 올려두었다.

〈표 3〉 선거부정 의혹 사건 주요일지

날짜	사건
'07.11	- 51대 총학생회 선거 “실천가능” 선본 당선 (총학생회장: 전창열, 부총: 박진혁)
'08.11	- 52대 총학생회 선거 “실천가능” 선본 당선 (총학생회장: 박진혁, 부총: 김진섭)
'09.01.22	- 총학생회 간부의 교내 생협식당 식권 위조사건 첫 언론사 보도
'09.11.02	- 53대 총학생회 공동선본 발족식 개최, 출마선본은 리본, 권리찾기, 예스위캔, 대동단결, 레볼루션. 이 중 “리본” 선본이 “실천가능” 선본 계열
'09.11.18-20, 23-25	- 53대 총학생회 선거 및 연장 선거
'09.11.26	- 선거는 성사됐으나 명부 분실로 개표 지연 - 선본장 회의에서 투표함 봉인 문제 공식제기, 예스위캔 선본에서 개표 전 투표함 개봉 가능성과 관련된 녹음파일 제출 - 개표 무기한 연기, 임시 총운위에서 재투표 결정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퇴
'09.11.27	- 새 선관위 구성
'09.11.28	- 부정선거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 첫 모임 (학내언론 기자들로 구성)
'09.11.30	- 제출된 녹음파일은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 채택, 총학생회실에서 훼손된 투표용지 발견, 투표함 봉인 상태 문제 등을 골자로 한 조사위 1차 발표
'09.12.01-03, 07-08	- 총학생회선거 재투표 및 연장투표 실시, 잔류 선본은 리본, 예스위캔, 대동단결
'09.12.02	- 조사위 주최의 총학생회 관련 공개청문회가 전임선관위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취소
'09.12.04	- 녹음파일, 투표용지, 투표함 봉인 조사, 당사자 간의 태도, 조사위 해소 등을 골자로 한 조사위 2차 발표 - 조사위 해소, 조사위의 조사자료는 총운위에 인계
'09.12.09	- 재투표 무산 - 단과대학총회장 연석회의 구성
'09.12.14	- 3차 임시연석회의에서 총학생회 관련 공개청문회 연기 결정 (기존 15일에서 16일로)

'09.12.16	- 총학생회 관련 공개청문회 개최 - 청문회에서 녹음파일 녹취록 공개
'10.03.08	- 박진혁 입대
'10.03.14	- 2010년 상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53대 총학선거 진상조사 3차 조사 보고, 총학선거 시행세칙 개정 및 확정, 총학 사태에 대한 성명서 초안 작성이 이루어졌으며 52대 총학생회 명예탄핵 이루어짐
'10.04.05	- 53대 총학생회재선거 공동선본 발족식 개최, 출마선본은 새판짜기, 민중의 벗, 권리찾기. 이 중 "새판짜기"가 녹음파일을 자료로 제출했던 "에스위캔" 선본 계열
'10.04.20-24, 26-29	- 53대 총학생회재선거 투표 및 연장투표
'10.04.30	- 선거가 아슬아슬하게 성사되었으나 선거인 명부에 대한 문제 제기
'10.05.01	- 선관위 명부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 발견 - 공개 선본장회의 소집 및 선관위원장 사퇴, 한명을 제외한 선관위원 총사퇴
'10.05.04	- 새로운 선관위장 사퇴, 선본 이의제기 수리 거부 및 선관위의 선거무산 의결
'10.11.23-25, 29-12.01	- 53대 총학생회 3차선거 투표 및 연장투표
'10.12.02	- 53대 총학생회 선거 "액션 어게인" 선본 당선 (총학생회장: 지윤, 부총학생회장: 두헌)

자료: 서울대저널, 大學新聞, 스누라이프

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스누라이프는 이런 여론의 표출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박진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그는 이듬해 3월 군(軍)휴학을 했다. 한편 총학생회 선거는 재투표가 무산되면서 결국 학생들은 2010년 한 해 동안 총학생회를 구성하지 못하였다(자세한 내용은 <표 3>의 사건일지와 [부록]을 참조할 것).

이것이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라면, 그 저변에는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학생운동 전반에 걸친 변화가 있다. 이 변화 중의 하나

는 학생회가 점차 학생들로부터 멀어지고,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차례의 연장 투표, 선거무산과 재선거, 심지어는 탄핵에까지 이르면서, 학생회라는 제도는 제도 나름의 혼란을,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의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다(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2006). 이런 상황에서 선거부정 의혹 사건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혼란과 좌절을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3) 태그달기의 시작

실질적으로 스누라이프는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이 학우들을 상대로 학내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으로, 이 선거부정 의혹 사건도 스누라이프를 뜨겁게 달구었다. 학내 자치 언론인 「서울대저널」은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소식들을 즉각적으로 스누라이프에 올렸고,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달된 소식에 기초해 많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교환했다. 그리고 이런 열기는 단순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넘어 실천이 수반되는 운동으로의 확장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촛불행사, 자보(字報), 릴레이 피케팅 등의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이 사건이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쉽게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폭발한 여론을 조직해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운동으로 전화(轉化)시키자는 취지의 것이었지만, 초기에는 이를 집단기억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이 명시적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비록 공식적으로 선거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었지만, 공개된 녹음파일의 녹취록과 공개청문회와 사후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박진혁의 태도 등을 바탕으로 박진혁에게 선거부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스누라이프의 여론이 움직이면서 이 사건

과 사건 책임자인 박진혁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방식의 대응을 택하자는 제안이 나오게 된다.

2009년 12월 6일에 「박진혁의 전략」이라는 글이 ‘총학생회’와 ‘박진혁’이란 태그를 달고 게시판에 올라왔고, 그 다음 날인 12월 7일에는 「박-진-혁-은-학-교-를-떠-나-라」라는 제목의 글이, 12월 8일에는 전날 글의 제목을 그대로 따온 「[박-진-혁-은-학-교-를-떠-나-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온다.¹⁰⁾ 12월 12일에는 처음으로 인기태그에 대한 제안이 등장한다.

2009.12.12. (필명숨김) [베스트요청] ‘박진혁’을 인기태그로 보냅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박진혁이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직 잘은 모르지만, 이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네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해명과 사과를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여론이 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철이죠.

사람들 기말고사 보느라 바쁠 때 청문회 해서 그 자리에서 나 죄 없다고 우겨서 어물쩍 넘어가고 졸업한 다음 군대로 튀겠죠.

그리고 갔다 와서 총학생회장 경력 가지고 로스쿨이나 들어가 보려고 할 겁니다.

리본 애들은 이때다 하고 나와서 “우리 죄 없어요!”라면서 모꼬지에서 애들 조직해서 3월 총학생회 당선 노리고 있을 겁니다.

10) 이 글들은 모두 필명을 밝히지 않은 채, 즉 ‘필명숨김’으로, 게시판에 올라 왔다. 스누라이프에서 이용자들이 필명을 숨기고 글을 올릴 수 있는 횟수는 게시글은 하루 1회, 댓글은 하루 2회로 제한된다. 또 필명으로 게시글을 작성할 경우에도 각 아이디마다 고유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필명을 바꾸더라도 식별이 된다. 게시글들을 인용할 때, 띄어쓰기는 교정했지만 나머지는 원문의 표현 그대로 두었다.

3월에 역풍 맞을 거 같으면 모꼬지-생협-프르니사사로 조직해서 11월에 나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박진혁’을 인기태그로 보냅니다.

광장이나 공사계에 쓰는 글에 박진혁을 태그로 달아서 이 일이 묻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시험기간 되니까 스누라잇 조회 수도 시들시들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유아무야 묻힐고 말 것입니다.

태그에 ‘박진혁’을 달아 꼭 인기태그로 보냅니다!

청문회 생겼던 그것도 모자라 연락 안 받고 잠수까지 댔던 그 뻔뻔함을 절대 잊지 맙시다.

[태그: 박진혁, 총학선거, 부정선거]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박진혁’을 인기태그로 보냅니다”라고 하는 이 글에는 집단기억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목적과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 운동을 주도하는 특별한 조직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태그를 사용할지가 문제가 되었다. 인기태그에 오르기 위해서는, 즉 태깅시스템의 알고리즘에 의해 같은 태그로 세어지기 위해서는, 여론의 표출방식이 한가지로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2월 25일에 실린 「태그에 박진혁을 답시다」라는 제목의 글은 이런 측면에서 더 구체적이고, 전술적이다.

2009.12.25. (필명숨김) 태그에 박진혁을 답시다

‘박진혁’, ‘박정역’, ‘총학선거’, ‘부정의혹’ 달기 운동을 합시다.

관련 없는 글이라도 저 중 하나씩만 태그에 달아주신다면 박진혁이 인기태그에서 떨어지지 않을듯...

[태그: 부정의혹, 총학선거, 박정역, 박진혁]

그러나 이런 제안들이 처음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위의 12월 25일자 글에 대한 댓글에는 “오 신선하고 매력적인 아이디어네요. 고맙습니다”, “위에 CEO 글 쓴 사람인데 달았습니다^^”라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냥 머릿속에만 있으면 되죠 뭐 …귀찮”이라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불확실했던 시작이 어떻게 2년여가 넘게 지난 지금까지 인기태그의 최상위에 자리잡고 남아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운동방식의 성공적인 유형을 찾고 21세기 사회운동의 지형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4. 전개의 과정과 기제

1) 자료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18개월 동안에 올라온 ‘박진혁’ 혹은 ‘박징역’이라는 태그를 단 게시글 4,504개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1차 자료를 구성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날짜, 게시판, 제목, 작성자, 게시글 조회수, 추천수, 비추(천)수, 신고수, 게시물에 단 태그, 태그와 게시글 내용의 관련여부, ‘낚시글(“박진혁 문학”)’ 여부 등이다.¹¹⁾

11) 분석에 앞서 스누라이프의 시스템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몇 가지 자료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태그를 달았던 글이나 태그달기를 권했던 글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진에 의해 삭제된 게시물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 숫자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다. (2)의명 사용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또는 그런 제한을 피해, 소위 ‘댓글알바’의 경우처럼, 조직된 소수의 개인들이 태그의 숫자를 늘렸을 이론적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태그가 달린 게시글의 수와 내용을 살펴보면, 그 가능성, 또 그랬을 경우의 전체적

〈자유게시판〉이 가장 많이(73.8%) 이용된 게시판이었고, 작성자의 필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필명숨김’)가 68.3%로 대다수였다. 이 글들이 얼마나 읽혔는지, 또 글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표 4〉의 조회수, 추천/비추(천)수, 신고수이다.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들은 추천/비추(천) 버튼을 누르거나 신고 기능을 활용해 자신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스누라이프는 이 숫자를 ‘공감수’로 집계해 추천수가 비추(천)수보다 여덟 개 이상 많으면 해당 글을 베스트 게시물 게시판에 중복게재한다. 신고는 더 강도가 높은 반응의 형태로 게시물에 대해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 기준과 양식이 팝업창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신고 기준에 따르면 스누라이프의 “이용규칙 위반으로 운영진에 의해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될 때 신고를 하게 된다.¹²⁾ 특별한 제재가 없

〈표 4〉 분석대상 게시글의 조회, 추천/비추(천), 신고수

	분석대상 게시글의 수	게시글당			전체 합계
		최소	평균	최대	
조회	4,504	8	1,122.8	15,750	5,056,010
추천		0	18.7	735	84,238
비추(천)		0	2.4	94	10,969
신고		0	0.2	10	700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박진혁’과 ‘박징역’을 포함하는 태그 전체의 양과 구성에 관한 자료는 구하지 못했다. 태그의 생태계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다행히(?) 분석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이 두 태그를 인기태그에서 밀어내고 스누라이프에서의 여론을 독점할 만한 다른 사건은 없었다.

- 12) 운영진에서 제시한 신고의 구체적 기준은 집단 간의 싸움 유발, 성(性)관련 순환주제, 욕설·비속어·인신공격, 선정성·음란성, 낚시성·도배·무의미, 기타 악성코드, 홍보성, 사생활 침해 등이 있다.

는 비추(천)과는 달리 신고 3회 이상의 글은 제재의 대상이 되고, 신고 누적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4,504개의 게시글에 달린 태그는 모두 15,569개로, 게시글당 평균 태그 수는 약 3.5개이다. 이 중 ‘박진혁’이 3,153개(70.0%)의 글에, ‘박징역’이 3,886개(86.3%)의 글에 태그로 달려 있다. 이들 중 ‘박징역’은 2009년 11월 30일의 「♣부정선거는 박진혁 혼자 하지 않았다!!!!」는 글의 태그에 처음 등장하고, 12월부터는 댓글과 게시글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앞에서 인용한 12월 25일의 「태그에 박진혁을 답시다」라는 글에서 ‘박진혁’, ‘박징역’, ‘총학선거’, ‘부정의혹’을 태그로 달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지금은 ‘박진혁’을 앞질러 이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태그가 되었다.

‘박진혁’이나 ‘박징역’이라는 태그가 달린 글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글의 내용이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가려 태그와 게시글 내용의 관련여부를 코딩하였다. 즉, 태그가 정보의 내용을 알려주는 ‘본래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와 정보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태그달기운동의 일환으로 쓰인 경우로 나누었다. 압도적인 다수(95.3%)는 후자의 경우였다.¹³⁾

2009년 12월 16일에 있었던 공개청문회의 속기록은 문제가 된 녹음 파일의 녹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속기록의 내용을 스누라이프에 올림으로써 이 사건을 지속적인 관심과 집단기억의 대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¹⁴⁾ 이런 속기록 게시글은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13) 현재의 자료로 태그달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동기 자체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다. 물론 선거부정 의혹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원래의 정치적 의도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미로, 특히 후반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따라서 태그를 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Strang and Soule 1998). 이런 동기의 혼재는 사회운동의 규모가 커지고, 성원들의 구성이 다양해지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자체가 사회운동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하다(예, Goodwin 1997).

14) [부록]으로 웹에 올려 놓은 이 속기록 요약문(「박진혁 청문회 하이라이트」)은 사건 초반에

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이 거듭되면서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 식상(食傷)을 피하는 한 방법으로 얼핏 보기에 속기록과는 무관해 보이는 제목을 달고 게시물을 올리는 “낚시글”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제목뿐 아니라 나름대로 흥미를 유발하는 도입부에 해당하는 글을 지어 속기록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이에 포털 이용자들이 참신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시도들은 분석기간 동안에 모두 53개가 발견되는데, 이들 중 특히 성공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박진혁 문학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한 예로 <사랑방> 게시판에 실렸던 「보고 싶어요… 그 사람… 밥은 먹고 다닐까」(2010년 1월 26일)라는 제목의 글은 3,370번의 조회, 208개의 추천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청회 속기록의 요약문이 올라오면 대부분 많은 추천을 받지만, 최근에는 게시물의 참신성을 두고 추천과 비추(천)이 갈리기도 하고, 오히려 다시 ‘정공법’, 즉 낚시글 없이 제목부터 선거부정 속기록에 관한 글임을 제시하는 방법을 쓴 글이 추천을 더 많이 받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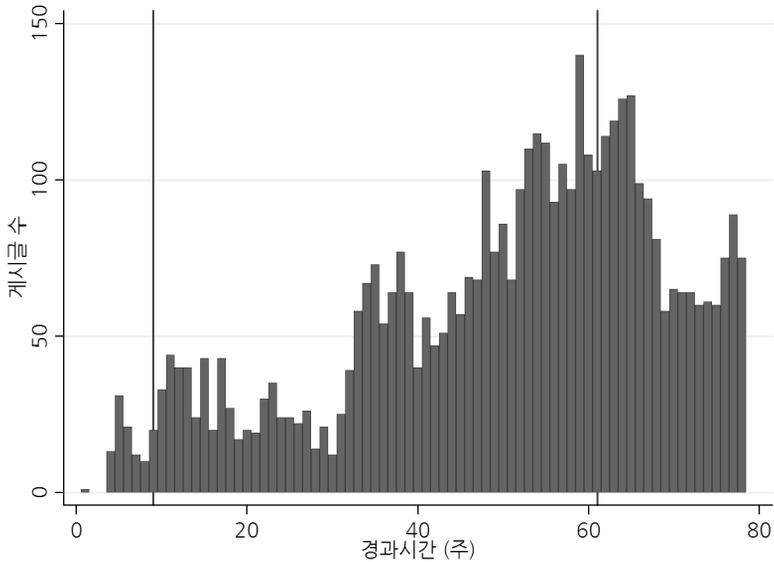
2) 분석

이 게시글 4,504개를 시계열로 펼쳐보면 <그림 4>와 같은 분포를 보인다. 주목할 점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게시글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¹⁵⁾ 특히 그 다음 번 총학생회장 선거가 있었던 2010년 11월에는 눈에 띄게 늘어났고, 그 후에도 높은 빈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전개과정 속에서 사회운동으로서의 태그달기가 갖는 몇 가지 독특한 기제들의 작동을 살펴볼 수 있다.

누군가가 정리해둔 글인데, 대체로 낚시글들은 이 문안을 복사해서 사용한다.

15) 이 기간을 둘로 나누어 월 평균 게시글 수를 비교해 보면 전반기는 54.4, 후반기는 120.4로 증가세는 뚜렷하다.

〈그림 4〉 ‘박진혁’ 혹은 ‘박징역’ 태그를 단 게시글 수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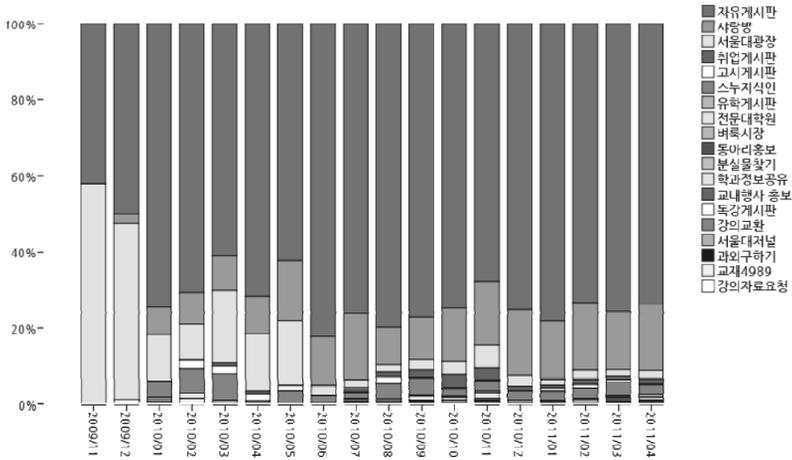
주: ---선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그리고 다시 2011년으로 해가 바뀌는 시점을 표시

(1) 공간적 확산: 게시판 경계 넘어가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누라이프는 주제와 내용을 달리하는 게시판들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진은 이용자들이 이 구분을 따를 것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각 게시판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글들을 적절한 게시판으로 이동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하기도 한다.¹⁶⁾ 이 사안의 성격상 그 중 가장 적합한 게시판은 학내·외 정치문제를 토론하는 〈서울대 광장〉이고, 태그달기의 시작도 이 게시판이었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다른 게시판으로 확산되었고, 그

16) 「게시판 이용 규칙 (12월 10일 업데이트)」(스누라이프, 2007/09/01)

〈그림 5〉 ‘박진혁’ 혹은 ‘박징역’ 태그를 단 게시글의 월별·게시판별 분포



중심도 <자유게시판>으로 옮겨 갔다. 예를 들어, 연애나 결혼 등 사랑이 이야기에 관한 게시판인 <사랑방>에도 상당수의 글들이 ‘박진혁’, ‘박징역’ 태그를 달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특히 게시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태그가 달리기 시작하는 2010년 초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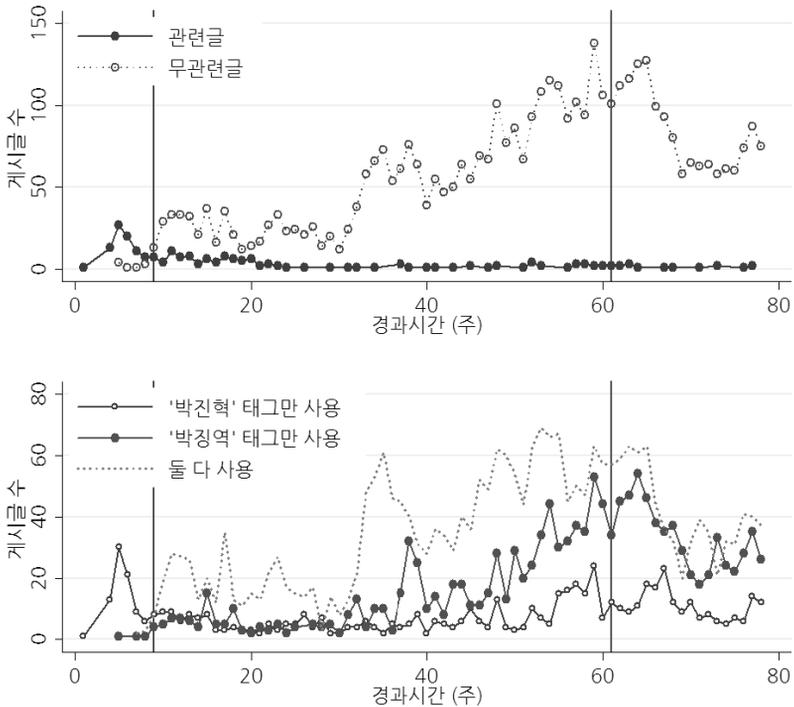
(2) 태그의 기능적 분리와 정형화

태그의 본래 역할은 이용자와 자료정보의 연결에 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료정보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대표하는 단어들이 활용된다. 하지만 태그달기라는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태그는 그 기능이 전혀 다르다. 이런 전용의 발단과 정착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 6〉의 상단에 있는 그림이다. 관련글이란 태그가 달린 게시글의 내용이 선거부정 사건과 연관이 있는, 따라서 태그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관련글의 추세는 〈그림 1〉의 에빙하우스 망각곡선과 같다. 반면 무관련글이란, ‘박진혁’ 혹은 ‘박징역’이라는 태

그가 달려있지만, 게시글의 내용은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2009년 12월 말에 두 선이 교차하고, 이후 관련글의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0년 5월 이후로는 태그를 단 게시글의 대부분은 무관련글에 해당된다. 운동의 주된 수단이 태그로 옮겨 가고, 그 과정에서 태그의 기능이 본래의 기능과는 분리되면서 상징성, 운동성으로 전화(轉化)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기제는 태그의 정형화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태그인 ‘박진혁’과 ‘박징역’이 동일인물을 지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른 사용빈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아직

〈그림 6〉 태그의 기능적 분리와 정형화: 관련-무관련, ‘박진혁’-‘박징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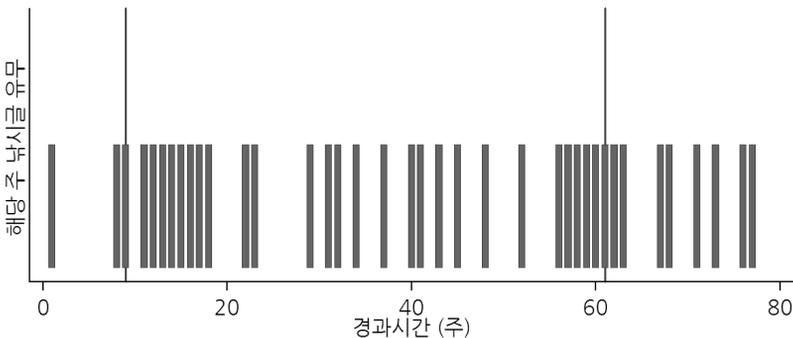
주: ---선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그리고 다시 2011년으로 해가 바뀌는 시점을 표시

까지는 두 태그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둘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그림 6>의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 초기에는 ‘박진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점차로 ‘박징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앞지르기 시작해 대표성을 획득한다. 이런 추세는 앞에서 다룬 태그 기능의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3) 낚시글을 통한 개입의 주기성(週期性)

<그림 7>은 낚시글의 시간적 분포를 보여 준다. 분석대상이 된 78주 중, 낚시글이 등장하는 경우는 모두 38주이다. 이들은 물론 전 기간에 걸쳐 퍼져있지만, 몇 가지 점이 눈에 띈다. 우선 낚시글이 사건의 시작으로 부터 약 2개월 후에 최초로 출현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나는 식상함을 피하는 방법으로 낚시글이 도입된 것이라면, 거꾸로 이 식상이 나타나는 데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도입된 낚시글은 그 후 두 시기에 걸쳐 밀도 높게 나타나는데, 두 경우 모두 해가 바뀌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스누라이프의 기반이 되는 대학사회는 매년 성원의 4분의 1가량이 졸업과 입학 을 통해 교체된다.

<그림 7> 낚시글을 통한 주기적 개입



주: ---선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그리고 다시 2011년으로 해가 바뀌는 시점을 표시

이런 불가피한 세대교체는 집단기억의 유지에 커다란 문제를 제기한다. 당시에 재학 중이었고 스누라이프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선거부정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지만, 2010년 이후에 입학하고 스누라이프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런 ‘신세대’ 집단의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건에 대한 기억은 흐려지게 된다(권귀숙 2004). 이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학기 초반부에 선거부정 사건을 소개하는 글과 태그달기를 독려하는 글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온다. 또 그런 글들에 대해 추천의 방식으로 힘을 실어주어 그것이 여론의 주된 흐름임을 강조한다. 이런 글들 중 대표적인 것이 2010년 12월 12일의 「박진혁을 잘 모르는 10, 11들을 위한 뉴스모음」이란 제목의 글, 그리고 2011년 3월 10일의 「11학년 너이녀석들이거나 봐라」라는 제목의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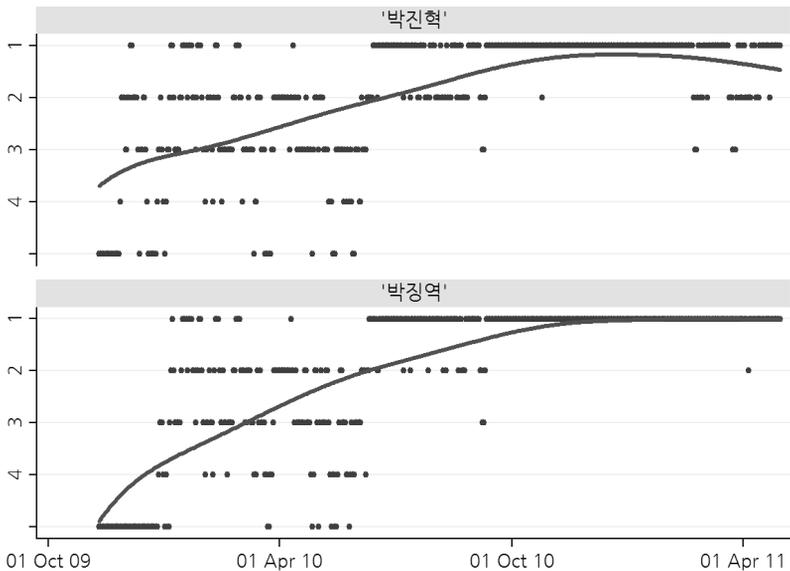
(4) 운동의 목표로서의 가시적 위세(威勢), 도구로서의 가시적 위세(威勢)

스누라이프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광장이라면, <인기 태그>란은 그 한가운데 높이 세운 광고판과 같다. 그 광고판에 커다랗게 쓰여진 ‘박진혁’ 혹은 ‘박징역’이라는 문구는 집단기억과 그 유지를 위한 사회운동에 그저 다수의 개인이 다는 태그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 우선 “스누라이프의 대문”이라고 불릴 만큼 포털 사용자 모두의 눈에 쉽게 띄는 위치(<그림 2>)에 자리하고 있어 그만큼 더 주목을 받는다는 대외적 확장성, 효율성의 측면을 들 수 있다. 대내적으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선거부정 사건의 의미라는 운동의 추상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를 ‘박진혁’과 ‘박징역’이라는 태그가 인기 태그에서 최상위의 순위를 유지하도록 지켜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전술로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다. 2010년 2월 3일에 올라온 「쿨타임이진 낚시건 그게 중요하냐」라는 제목의 글은 태그달기 운동의 이런 양면적 가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표 2>에서 본 것처럼 인기 태그에 오르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는, 시간과 빈도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그저 전체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시계열상에 어떻게 분포되느냐도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제도화된 조직도 없이 이렇게 꾸준히 일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긴장이 필요하다. 얼마나 그 긴장이 팽팽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그림 8>과 <표 5>이다.

<인기 태그>는 지난 3일 간 게시물들에 달린 태그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 알고리즘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을 537개의 구간으로 나눈 뒤, 그 각각의 기간 동안 ‘박진혁’과 ‘박징역’ 태그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정리했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0년 2학기부터는 두 태그 모두 최상위인 1등급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둘 사이에 차이가

<그림 8> ‘박진혁’과 ‘박징역’의 <인기 태그>에서의 등급 변화



〈표 5〉 연속성 검증 결과

태그	등급	4	3	2	1
	(태그수)	(3-4개)	(5-7개)	(8-11개)	(12개 이상)
	시험기준값	4	6	10	16
'박진혁'	연속구간수	18	34	46	58
	Z값	-17.7***	-15.8***	-18.1***	-18.3***
'박징역'	연속구간수	18	26	40	36
	Z값	-19.4***	-19.1***	-18.9***	-20.0***

[주: $n=537$. * $p<.1$; ** $p<.01$; *** $p<.001$.]

있다면, 초기에는 ‘박진혁’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했지만, 후반으로 오면 오히려 ‘박징역’이 더 공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운동의 초기에는 장기간 부침이 있었고, 최상위에 이 태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에도 2010년 여름방학을 걸치는 약 4~5개월의 기간 동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이 불안정했던 기간 동안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표 5〉에 보고된 연속성 검증(Runs Test)의 결과다. 이 검증은 시계열상에서 이어지는 구간 간의 변화가 어떤 방향성을 갖는가를 측정한다. 즉 구간 t_0 에서의 값이 t_1 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반대로 앞 구간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이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두 태그 다 모든 등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負, -)의 관계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박징역’의 경우가 더 강한 경향을 보이고, 1등급에서 가장 효과가 크다. 즉, 이 태그들이 1등급에서 떨어지면(↓), 바로 동원과 참여를 통해 태그의 숫자를 늘려 다시 1등급에 올려놓아(↑) 〈인기 태그〉에서의 순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림 4〉에서 본 전반적인 추세가 최소한 이 절에서 다른 기제들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

다. 그리고 이런 결론은 태그달기를 성공적인 사회운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5. 온라인에서의 기억과 전망: 일회성에서 지속성으로, 휘발성에서 응결성으로

인터넷과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매체의 출현은 사회운동의 생태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고, 사회운동의 구조와 동학 자체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사회운동과 집단기억의 연결, 특히 사회운동을 통한 집단기억의 유지라는 기제의 기본적인 틀 자체는 낫선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보는 작동방식은 새롭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운동 수단을 통해 전혀 다른 형태의 연결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 사례인 스누라이프에서의 태그달기는 2009년에 있었던 학내의 선거부정 의혹 사건을 2년이 넘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성공한 경우로 온라인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 어느 정도의 현실성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운동의 방식과 형태가 동원과 참여를 더 쉽고, 더 부담없고, 더 빠르고, 더 넓게 만드는 양적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질적인 변화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스누라이프에서의 태그달기 운동은 그 효과의 크기와 시간적 지속성 면에서 일반적인 ‘고비용/고위험’의 행동유형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냈다. 특히 제도화된 공식 조직이 없이도 대규모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저비용/저위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보듯

비용과 위험을 운동의 성공가능성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등식(等式)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더 이상 철칙이 될 수 없다. 동원과 참여 범위의 규모나 속도에 있어 단순한 양적 확대와 증가의 차원을 넘어서는 전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질적 전환은 꼭 온라인이나 태깅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Fischer(1982)가 주목한 도시화의 효과에서 보듯, 대부분의 양적 변화에는 사회구조적 임계점(臨界點, 또는 역치: 閾值)이 있어서 그 선을 넘어가면,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온라인 공간의 도입이 가져온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대규모, 고밀도 집적(集積)의 가능성인 것이다(Granovetter 1973).¹⁷⁾

이 가능성은 사회운동의 이론적 측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사회운동의 효과, 보다 구체적으로는 운동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양식의 효과를 고려함에 있어, 단순히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지, 또 얼마나 깊은 헌신에 기초한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운동의 전략과 전술, 내용과 형식이 각각의 사회적, 기술적 상황에서 얼마나 서로 어울리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연에 의한 것이든, 의도된 것이든, 이 연구에서 살펴본 태그달기 운동은 그 전개과정에서 기존의 온라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전용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흩어진 개개인의 일회적 행위들을 지속력 있는 사회적 상징물로 모아내고, 시간의 흐름에서 오는 망각의 중력을 버텨내고, 집단기억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이런 새로운 방식들이 온라인에서의 사회운동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사회운동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Soule and Tarrow 1991; Tilly 1978; cf. Gladwell 2010).

이 연구의 함의를 이론적, 경험적, 실천적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여

17) Anderson(2006)이 ‘긴 꼬리(long tail)’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Amazon.com, Apple, Netflix 등의 성공도 이 현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기서는 우선 이 사례의 분석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론적 함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그 함의의 핵심은 구체성이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이(Castells 1996; 민경배 2006; 안광현·윤종현 2009; 정재철 2006) 시민 사회, 더 나아가서는 ‘전자민주주의’라는 다소 추상적인 맥락 속에서 인터넷과 사회운동의 접점을 찾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접근들이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는 구체적인 과정들에 초점을 맞추었다(조대엽 1999). 그리고 이런 시각의 연속선상에서 앞으로의 연구들이 더 진척시켰으면 하고 바라는 논의들은 크게 두세 가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다.

그 하나는 Habermas(1989)의 ‘공론장’이란 개념을 온라인에서의 행동양태 수준에서 구체화 시키려는 노력이고, 또 하나는 태그의 생태계처럼 여론과 관심, 또는 이슈의 온라인 생태계를 이론적으로 구성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의 틀 안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이다. 지금까지의 온라인 사회운동에 관한 논의들이 지나치게 짧거나 긴 시간의 지평을 분석의 틀로 삼음으로써 그 중간 수준에 걸쳐 있는 관계, 조직, 제도의 동학을 보는 데는 소홀했고, 사실상 시간의 흐름이란 문제를 피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기 때문이다. ~~XXXX~~

참고문헌

- 강장묵·조희정. 2008. “네트워크 정치와 온라인 사회운동: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42집. 311-332.
- 권귀숙. 2004. “기억의 재구성 과정.” 『한국사회학』 제38집. 107-130.
- 김현우·이강표·김형주. 2010. “태깅 시스템의 태그 추천 알고리즘.” 『컴퓨터

- 의 실제 및 레터』 제16권. 927-935.
- 미야베 미유키. 2006. 『모방범(模倣犯)』. (양역관 역). 문학동네.
- 민경배. 2006.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운동』. 한국학술정보.
- 박명규. 1997.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사회와 역사』 제51집. 41-74.
-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2006.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대학교.
- 안광현·윤종현. 2009. “온라인 행동주의 발생 예측을 위한 지표설정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2권. 85-101.
- 장덕진. 2012. 『트위터 이후의 민주주의』. 한울.
- 정재철. 2006.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의 공론화 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3호. 253-285.
-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나남.
- 한성훈. 2008. “기념물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집단 정체성.” 『사회와 역사』 제78집. 35-63.

- Anderson, Chris. 2006. *The Long Tail: Why the Future of Business is Selling Less of More*. Hyperion.
- Bimber, Bruce. 2000. “The Study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ivic Engagement.” *Political Communication* 17. 329-333.
- Bodnar, John. 1993. *Remaking America: Public Memory, Commemoration, and Patriotism in the Twentieth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Information Age)*. Blackwell.
- Earl, Jennifer, and Katrina Kimport. 2011. *Digitally Enabled Social Change: Activism in the Internet Age*. MIT Press.
- Fischer, Claude S. 1982. *To Dwell among Friends: Personal Networks in Town and C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4. *America Calling: A Social History of the Telephone to 194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arrett, R. Kelly. 2006. “Protest in an Information Society: A Review of Literature

- on Social Movements and New ICT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9. 202-224.
- Gladwell, Malcolm. 2010. “Small Change.” *The New Yorker* (2010/10/04).
- Golder, Scott A., and Bernardo A. Huberman. 2005. “Usage Patterns of Collaborative Tagging System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2. 198-208.
- Goodwin, Jeff. 1997. “The Libidinal Constitution of a High-Risk Social Movement: Affectual Ties and Solidarity in the Huk Rebellion, 1946 to 1954.”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53-69.
- Granovetter, Mark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 Habermas, Jürgen.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MIT Press.
- Halbwachs, Maurice. 1992. *On Collective Mem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Adam, Doug. 1986. “Recruitment to High-risk Activism: The Case of Freedom Summ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64-90.
- McPhail, Clark, and John D. McCarthy. 2004. “Who Counts and How: Estimating the Size of Protests.” *Contexts* 3. 12-18.
- Olick, Jeffrey K., and Joyce Robbins. 1998. “Social Memory Studies: From ‘Collective Memory’ to the Historical Sociology of Mnemonic Practi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05-140.
- Rolfe, Brett. 2005. “Building an Electronic Repertoire of Contention.” *Social Movement Studies* 4. 65-74.
- Roscigno, Vincent J., and William F. Danaher. 2001. “Media and Mobilization: The Case of Radio and Southern Textile Worker Insurgency, 1929 to 1934.”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 21-48.
- Schwartz, Barry. 1982. “The Social Context of Commemoration: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Social Forces* 61. 374-402.
- Smith, Gene. 2008. *Tagging: People-powered Metadata for the Social Web*. New Riders.

- Snow, David A., Sarah A. Soule, and Hanspeter Kriesi. 2009.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Wiley-Blackwell.
- Soule, Sarah A., and Sidney Tarrow. 1991. "Acting Collectively, 1847-1849: How Repertoires of Collective Action Changed and Where It Happened."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al Science History Association, New Orleans, LA.
- Strang, David, and Sarah A. Soule. 1998. "Diffusion in Organizations and Social Movements: From Hybrid Corn to Poison Pill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265-90.
- Tilly, Charles. 1978.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Longman.
- Zollers, Alla. 2007. "Emerging Motivations for Tagging: Expression, Performance, and Activism." *WWW2007* (http://www2007.org/workshops/paper_55.pdf).

<기타자료(웹사이트)>

大學新聞(<http://www.snunews.com>).

서울대저널(<http://snujn.com>).

스누라이프(<http://snulife.com>).

투고: 2012.3.22 심사: 2012.3.27 확정: 2012.4.13
